

2026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특강

불안의 시대, 다시 쓰는 빵과 장미

엄혜진(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 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

세계 여성의 날



① 여성의 날(Woman's Day)의 탄생 (1909, 미국)

1908년 뉴욕의 여성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임. 미국 사회당이 이를 기념하여 2월 28일 뉴욕시 행진을 기획

② 국제화(International Women's Day, 1910)

1910년 코펜하겐 국제사회주의여성회의에서 클라라 체트킨의 제안으로 국제적 기념 결의, 여성 참정권과 여성노동 문제를 국제적 의제로. 2011년 3월 19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첫 번째로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진행.

③ '3월 8일'의 상징화 (1917)

러시아에서 1917년 3월 8일 여성노동자들의 빵 시위가 2월 혁명의 도화선이 됨. 이후 1921년 코민테른 여성회의에서 3월 8일로 날짜 통일

④ 1970년대 이후 재부활과 UN 공인

여성해방운동의 확산 속에서 3.8이 다시 정치적 의미를 회복. 1977년 UN이 공식 기념일로 승인 초국적 페미니즘 상징으로 자리잡음

신상숙((2010), “루트거스 광장”을 넘어서: 3.8 세계여성의 날의 복합적 기원과 한국의 수용 맥락”

빵과 장미



“모든 이에게 빵을, 그리고 장미도” - 서부 여성들의 슬로건 (Bread for all, and Roses, too"-a slogan of the women of the west)

J. Oppenheim(2011), <아메리칸 매거진>

우리가 환한 아름다운 대낮에 행진, 행진을 하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컴컴한 부엌과 잿빛 공장 다락이
갑작스런 태양이 드러낸 광채를 받았네.
사람들이 우리가 노래하는 “빵과 장미를, 빵과 장미를”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진하고 또 행진할 땐 남자를 위해서도 싸우네,
왜냐하면 남자는 여성의 자식이고, 우린 그들을 다시 돌보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린 착취당하지 말아야만 하는데,
마음과 몸이 모두 굶주리네: 빵을 달라, 장미를 달라.

우리가 행진하고 행진할 때 수많은 여성이 죽어갔네,
그 옛날 빵을 달라던 여성들의 노래로 울부짖으며,
고된 노동을 하는 여성의 영혼은 예술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 우리가 싸우는 것은 빵을 위한 것 - 또 장미를 위해 싸우기도 하지.

우리들이 행진을 계속하기에 위대한 날들이 온다네--
여성이 떨쳐 일어서면 인류가 떨쳐 일어서는 것--
한 사람의 안락을 위해 열 사람이 희생당하는 고된 노동과 게으름이 더 이상 없네.
그러나 삶의 영광을 함께 나누네: 빵과 장미를 빵과 장미를 함께 나누네.

제1물결 페미니즘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기본적 의견에 대해 침묵할 것을 강요 받아선 안 된다.
여성은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그 의사 표현이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흐리지 않는 한 연단에 오를 권리도 가져야 한다.”

올랭프 드 구주(Olympe de Gouges, 1748–1793),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a femme et de la citoyenne*』(1791)

참고 | “제10조: 누구도 그 의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일지라도 그 표명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방해될 수 없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1789)

제1물결 페미니즘

“남성에게는 권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넘치지 않아야 한다.
여성에게도 권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레볼루션 *The Revolution*』(1868)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가 수전 B. 앤서니(S. B. Anthony)와 엘리자베스 케이디 스탠턴(E. C. Stanton)이 설립한 신문사 『레볼루션』의 사훈

제2물결 페미니즘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진다.”

시몬느 드 보봐르(Simone De Beauvoir),
『제2의 성』(1949)

제2물결 페미니즘

“여자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진다.”

시몬느 드 보바르의 『제2의 성』 (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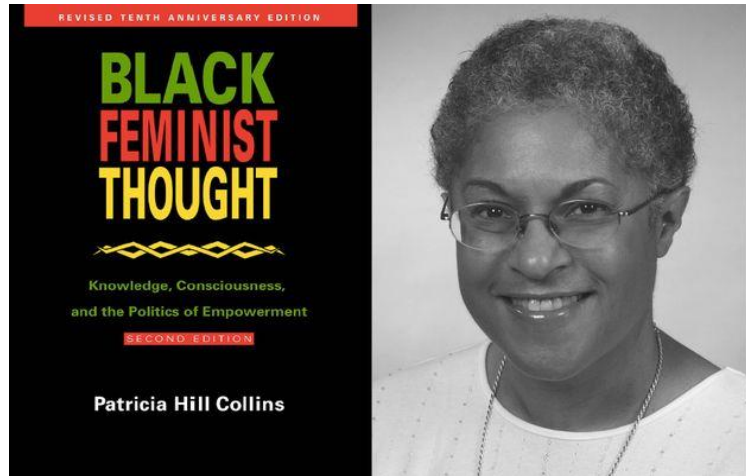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196-70년대 신좌파 운동 구호

“자매애는 강하다.”

제2물결 페미니즘의 구호

제3물결 페미니즘



“전적으로 인종적이거나 전적으로 성적인 억압은 없으며
인종적-성적 억압의 형태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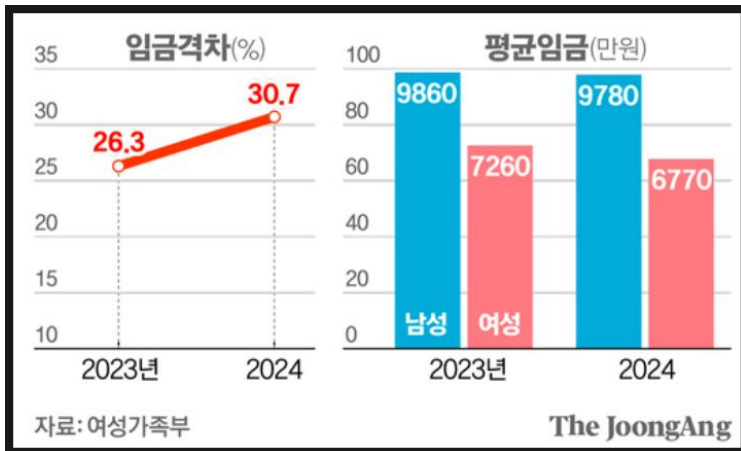
패트리샤 힐 콜린즈

제3물결 페미니즘

“이 사건에서 법원이 흑인 여성이 인종과 성이 결합된 차별을 마주함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은 젠더 및 인종차별 독트린의 경계가 각각 백인 여성과 흑인 남성의 경험에 의해 규정됨을 함의한다. 이런 관점에서 흑인 여성은 그 경험이 두 그룹 중 하나의 것과 일치하는 한에서는 보호받는다. 그들이 독특한 경험을 하는 경우,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교차성의 문제를 완전히 덮고 가는 식의 접근이 팽배하는 한 흑인 여성은 거의 어떤 보호도 기대할 수 없다(Crenshaw, 1989:142-143).”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란 1976년 엠마 디그레핀(흑인, 여성, 노동자, 아내, 어머니)이 GM 생산부를 상대로 낸 해고 소송에 대한 분석을 통해, 흑인 여성의 경험에서 인종 혹은 젠더의 차원으로 분리해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차별의 동시적 힘의 작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

오늘날의 빵과 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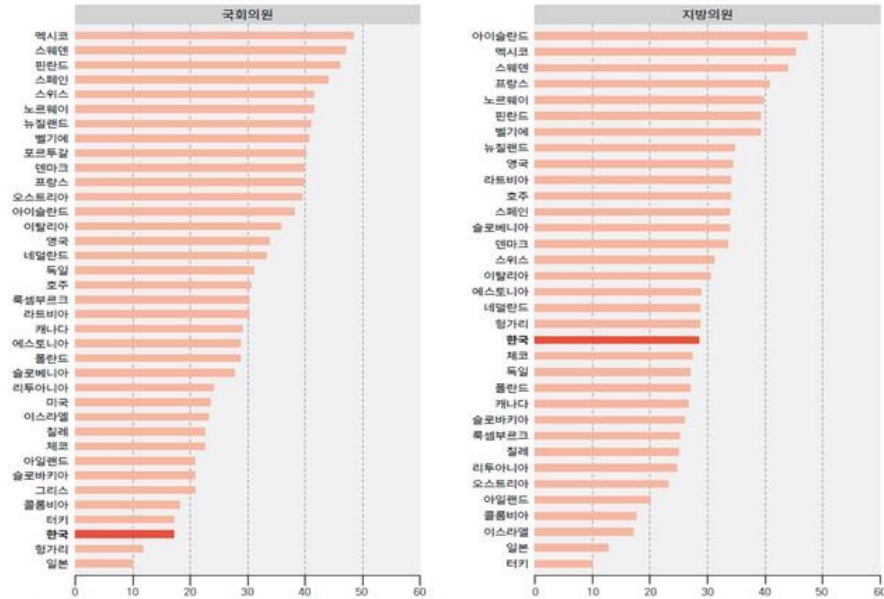


- 2024년 현재, 성별 간 임금 격차는 30.7%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인 26.3%보다 4.4%포인트 증가한 수치.
- 이 수치는 OECD 평균 임금 격차 11.3%의 약 2.7배에 해당하며, 한국은 OECD 가입 이후 29년째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이어가고 있음.

오늘날의 빵과 장미

< OECD 국가의 여성 국회의원(2020) 및 지방의원(2018) 비율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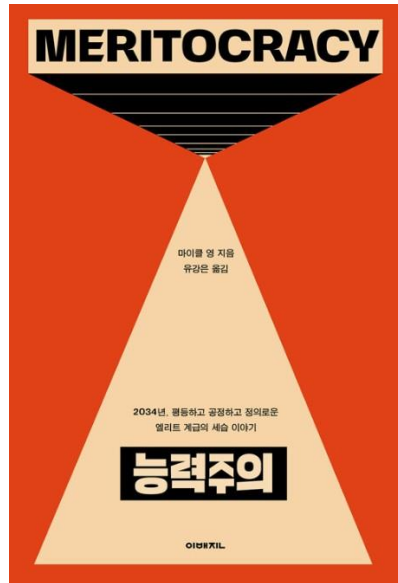
- 2024년 22대 선거를 통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최초로 20%에 이룸. 지역구 14.2%, 비례대표 52.2%로 구성
- OECD 평균은 33.8%

출처: 국회의원 IPU, 지방의원은 UNWOMEN 취합

주: 국회의원은 2020년 1월 기준으로, 한국은 2020년 4월 총선 전 17.3% 수록

지방의원은 오스트리아·영국은 2019년, 체코·에스토니아·일본·폴란드는 2017년 데이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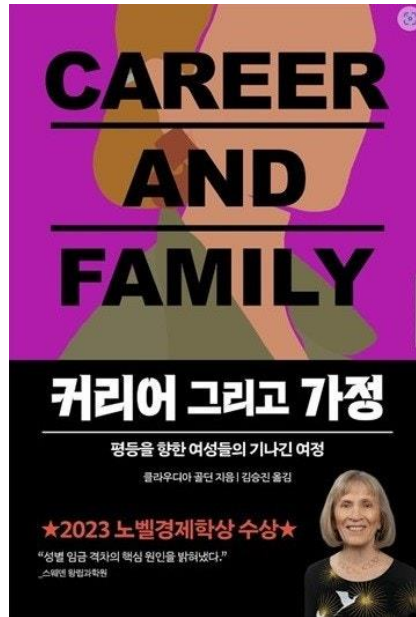
젠더화된 불평등과 불안의 증대



“여성은 지능보다는 개인적 특질로, 세속적 성공보다는 따뜻한 마음씨와 발랄한 성격, 매력으로 평가받았다(Young, 1994: 274)”

능력주의 시스템은 이상적인 개인과 표준적인 노동자를 남성으로 상정한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를 경제적으로 비가시화하여 여성을 개인으로 호명하는(작동) 한편, 여성의 능력을 개인이 아니라 여성 집단의 특징으로 정형화하는(오작동) 이중적인 체계이다. 그동안 진척돼온 유리천장(glass ceiling)에 관한 페미니즘 연구는 이를 분석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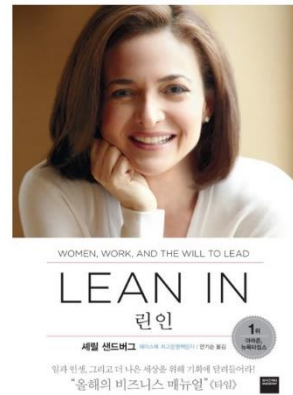
젠더화된 불평등과 불안의 증대



- 동일 직종·직무에서 발생하는 임금 격차가 더 큼(3분의 2)
- 장시간 노동과 비상대기(On-Call) 상태를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일자리(greedy work)
- 커리어를 집중적으로 쌓는 일과 임신·출산·양육을 둘러싼 생애 계획 간의 시간 충돌
- 성별 소득 격차는 부부가 탐욕스러운 일자리와 유연한 일자리를 각각 맡을 때, 즉 부부 간 불평등과 불공평을 감내할 때 가구소득이 최적화를 달성하게 상황에서 벌어지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
- “가정에서 부부간 공평성이 버려지면 일터에서 성평등도 버려진다.”(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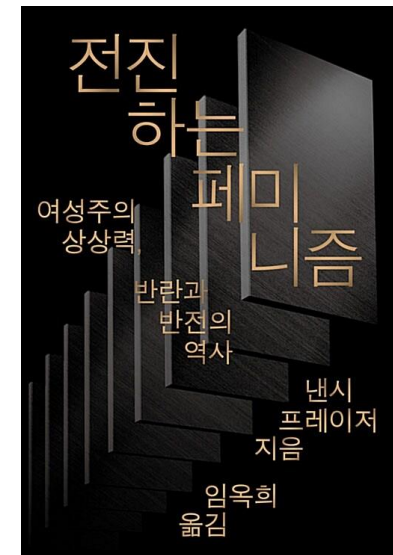
젠더화된 불평등과 불안의 증대

- 시장 질서와 경쟁의 고도화로 근대적 성별 분업이 약화되었지만, 돌봄 및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초래하는 한편, 성차에 대한 경제주의적 재정의 과정을 통해 여성에게 재할당
- 근대적 성별 규범이 생물학적 본질주의에 기반해 성차를 배치했다면, 신자유주의는 성차를 경쟁 자원 등 경제주의적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기획. 성차와 그 경험은 젠더화된 특성이 아니라 위험 혹은 자원이 될 수 있는 개개인의 기질이자 속성으로 이해되고 개인의 능동적 자리 관리 대상으로 간주(엄혜진, 2016).
- 성차 본질주의와 성차의 자산 가치화의 공존
- 전/근대 모성(‘위대한 어머니’)과 신자유주의적 모성(‘맘충’), 섹슈얼리티의 자산가치화와 금융화



페미니즘이 제안하는 전환 사회

“탈산업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한 명이 벌어서 가족을 부양할 정도로 충분한 임금을 받는[가족임금모델] 일자리는 거의 없다. 대안은 몇 가지가 있다. (중략) 하나는 여성을 지금의 남성들처럼 만드는 것이다.[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 다른 하나는 남성과 여성을 별로 변화시키 않고 내버려 두면서 여성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동등한 돌봄제공자 모델] 세번째 남성을 지금의 대다수 여성처럼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돌봄 노동을 함께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 낸시 프레이저. 2013 『전진하는 페미니즘』



감사합니다.
